

전남매일

“최강 전력 4연패 도전”

실전 방불케 하는 전술훈련 ‘구슬땀’
올해 전국대회 우수성적 ‘금’ 청신호

전국체전 다크호스 점검

⑩전남 제일고 수구팀

◇ ‘금빛사냥’ 위한 힘찬 발돋움
부른 돌출을 가르며 상대 골방을 향해 뛰어넘는 수구 선수들이 실재 없이 보여주고 있다.

공을 차치하기 위해 치열한 몸싸움을 벌여, 한 손에 쥔 선수의 공이 상대팀 골방을 지쳐로 든다.

공이 터지자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휘슬소리와 함께, 감독의 신난 교함이 수영장 전체를 찰랑찰랑 울린다.

감독의 수비 지휘에 선수들의 눈빛이 바짝 독이 올라, 급제 대결을 준비하고 다시금 실전훈련이 돌입한다.

전날 제일고 수구팀은 오는 18일 이를 앞둔 다가온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남체육고에 수명상서 오전 일찍부터 ‘금빛사냥’을 위한 힘찬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이번 인천체전에 제일고 수구팀은 전남 고등부 대표로 나서 4연패 도전에 나선다.

이미 전국에서 최강 전력으로 알려진 제일고는, 지난해전 우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술훈련이 여념이 없다.

끝까지 3시간째 물속에서 허반신을 이용해 신체를 지탱하며 공의 움직임을 따라 공격과 수비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선수들은 전술훈련이든 자신이

만진 숨이 끝내를 벗어나거나 방어 선수의 선방으로 미스가 발생하면 물보라가 크게 일어날 정도로 손바닥을 물속에 내리치며 강한 승부군성을 드러냈다.

제일고는 이번 체전 고등부 수구 경기에 총 13명이 참가한다.

3학년 6명·2학년 3명·1학년 4명이다.

7명이 참가한 수구는 1~2학년에게 비해 경험이나 기량·체력면에서 앞선, 3학년 위주로 경기를 치른다.

◇전국대회 우수 성적
제일고의 체전 4연패 전망은 밝다.

올해 주요 전국대회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상의 전력으로 뽐내고 있다.

제일고는 ▲4월 동아수영대회 우승과 ▲3월 한라배 준우승 ▲8월 수구선수권·9월 화강대서 각각 3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체전서 제일고는 서울체육고·광원체고와 함께 3강 전력으로 분류된다.

서울체고는 한라배서 지역교를 뛰고, 우승을 차지한 전통 강호팀이다.

동아수영대회서 연정까지 가는 경진 끝에 제일고에 12-9로 패한 강원체고는, 지난 해전 결승서도 제일

고에 무릎을 꿇어 준우승에 머문 팀이다.

광원체고가 수구 강팀이긴 하지만, 최근 제일고에 잇따라 패하면서 전조관계가 형성돼 버렸다.

수구 품목은 결승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총 4강기를 치른다.

제일고 1회전은 오는 20일 무진전 반말과 경기가다.

부산은 수구전력이 최하위권 수준으로 별 어려움없이 제일고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회전은 대전이다. 대전도 부산과 마찬가지로 중하위권이다. 무너진 3회전까지 제일고가 올라 갈 것으로 보인다.

3회전은 경기도다. 기량은 중상위 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일고에 비해 개인기량이 떨어져 열세로 평가된다.

결승에선 서울이나 강원이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고 입점에선 아규라도 지난 3월 한라배 결승서 아규체 전 경력이 있는 서울보다, 강원이 올라올 것 내심 기대하고 있다.

◇막강 선수들

제일고 수구팀의 강점은 팀 메이커로 불리는 플레이메이더 고은 기량을 갖춘 선수들의 팀플레이에 있다. 재전을 앞두고 실지훈련서도 세트플레이에 비중을 많이 뒀다.

무엇보다 수장을 맡고 있는 최현석(3년)이 골격 선봉이 있다.

신장 184cm에 74kg의 수구선수로서 최강의 신체조건을 갖춘 최현석은, 팀에 센터포를 맞고 있으며 수영



전남 제일고 수구팀은 오는 18일 인천 전국체전서 전남 고등부 대표로 나서 4연패 도전에 나선다.

이 접하고 빠른 판단으로 수방 능력이 뛰어나다.

올해 동아수영대회 우승 겸인차 역활도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이며 전국에서 센터포로 톱킹 5명권에 꼽힌다.

팀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활을 하고 있는 나승현(3년)의 활약도 체전서 기대된다.

신장 175cm의 단신에 속한 나승현은, 기량을 끌어가는 경기운영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상대를 속여 기발한 패스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는 테크닉이 가장 큰 강점이다.

지난해전 우승시 가장 큰 공을 세운 선수다.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약중이다.

점박이머리를 자랑하는 수문장 진수인(3년)은 한 골키퍼 가운데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177cm의 다소 작은 신장이지만 타고난 순발력과 감각적인 골키퍼

능력으로 팀에 존재감이 가장 큰 선수 중 하나다.

수비에선 김민웅(3년)이 돋보인다. 182cm에 75kg의 무림현 신체조건과 파워를 지닌 수비수로, 향후 1~2년내 제일고 수구 골을 이끌 주망주다.

상대 공격 포인트 지점을 제때 파악해 찢거나 수비로 유망하다.

이와 반대로 김민웅은 체전 전영 50m와 100m 종목을 참가해 수구와 함께 3관왕을 노릴 각오다.

김민웅은 올해 동아수영대회서 종합 50m와 100m서 준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다.

현재 경영상비군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현재대로 진로가 결정됐다.

2학년이던 김재현과 이정석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몸집을 사용하는 김재현은 포스나 공격서 전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석은 체력이 뛰어나 수비·공격 등 전선 선수로 활동한다.

1학년이던 장덕이 눈에 띈다.

아직 걸림이속으로 체전서 후보 선수지만, 182cm에 75kg의 무림현 신체조건과 파워를 지닌 수비수로, 향후 1~2년내 제일고 수구 골을 이끌 주망주다.

◇화학교수의 아낌없는 지원

제일고 수구팀의 훈련은 새벽 6시에 시작된다.

오전에는 체력소모가 많은 수구 경기 특성상, 중도에는 체력훈련에 중점을 둔다.

제일고 운동장서 인터벌을 시작으로 근력강화를 위한 무거운 동작까지 양백한 몸 만들기에 집중한다.

점심후 오후엔 전남체고서 수구 경기에 필요한 다양한 전술 훈련 시간을 갖는다.

수비·공격·수영과 세트플레이 등, 실전서 일어날 여러 상황을 가상해 반복 연습한다.

제일고 수구팀은 전국 최강팀이다.

1991년 수구팀을 창단해 3년 뒤인 1994년 전국체전 준우승을 시작으로 1995~1999년 5연패, 2001~2004년 4연패 2010~2012년 3연패 등을 일궈냈다.

학교측의 아낌없는 지원이 성적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제일고에 부임한 과학영 교장의 ‘수구사랑’은 전국대회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선수들과 평소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박 교장은 운동할 수는 체력의 환경조성 및 선수들의 정신적인 멘토역할을 자임해 팀 사기진작에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제일고 이남현 교장은 “이번체전서 대진문도 좋고, 무난히 체전 4연패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수들이 1년 동안 축적한 훈련을 건터낸 만큼, 체전서 팀의 길잡이 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 /고형민 기자

광남일보

94회 전국체전 18일 인천서 개막

46종목 '일주일 열전'
광주전남 2890명 참가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 체육대회가 오는 18일 인천에서 열전의 막을 올린다.

올해로 94회째를 맞는 전국체전은 대회 첫날 인천 문학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달 24일까지 일주일동안 펼쳐진다. 정식종목 44개, 시범종목 2개 등 46개 종목에 선수 2만2000여명, 임원 8000여명 등 3만여명이 참가한다.

지난해와 같은 전국 13위를 목표로 출전하는 광주선수단은 물리학과 세팍타크로, 수상스키를 제외한 43개 종목에 1227명(본부임원 60, 감독 66, 코치 133, 선수 968)이 참가한다. 부문별로는 고등부 443명(남 295, 여 148), 대학부 148명(남 104, 여 44), 일반부 377명(남 258, 여 119) 등이다.

광주시는 이미 사전경기로 치러진 배드민턴 여대부에서 조선대가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첫 금메달은 대회 이틀째 태권도 49kg이하에 출전하는 조선대 김미소씨가 유력하다. 같은 날 치러지는 우수 쿵푸 태극권전능 부문 남자 일반부의 장용호와 보디빌딩 웰터급



제94회 전국체전 대회 상징물인 마스코트 아이로(I-PO-위)와 엠블럼.

김형찬도 금메달 기대주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 울산 등과 하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는 육상과 태권도 레슬링 양궁 등에서 예상대로 선전해준다면 지난해와 같은 13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 체육회 박재현 사무처장은 "전략 종목에서 대진이 불리하지만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 싸워준다면 목표인 13위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대회에 46개종목 173개 종

별 가운데 155종별에서 선수 1238명과 임원 425명 등 1663명의 대표단을 인천에 파견하는 전남도 체육회도 1차 목표를 지난해 순위인 12위를 유지하는데 두고, 내심 최근 가장 최고를 기록했던 2011년 순위인 종합 11위도 남본다는 복안이다. 전남은 특히 지난 2008년 89체전을 개최한 이후 지난 90·91체전에서 연속 종합 10위를 기록했던 성적은 아니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성적을 올려 남도인의 기상을 어떻게든 회복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다.

도 체육회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선수단은 지난해(2만8471점)보다 전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최고 3만점대의 득점이 점쳐진다. 다만 변수 발생이 큰 불링과 근대5종·승마·롤러·골프 등 기록종목과 득점 폭이 큰 단체종목(수구·축구·탁구·배구)에서 예상 밖의 복병을 만난다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전남도 체육회 박내영 사무처장은 "이번 94체전의 경우 충북과 전북, 전남이 11위에서 13위까지 치열한 순위다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일 선수단의 성적표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석 기자 pius97@

남도투데이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도 선수단 출사표

"1차적으로는 지난해 순위인 종합12위를 지키려는 대충전을 다하겠다. 그러나 어떻게든 종합11위 탈환에 대한 욕망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지난 7월30일 전라남도체육회 수장으로 취임 뒤 2개월여를 지나 오는 18일부터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앞둔 박내영 사무처장의 각오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17개 시·도에서 24,537명(선수 18,687명, 임원 5,9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인의 명예는 물론 각 시·도의 자존심을 걸고 치열한 경전을 펼친다.

전라남도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46개 종목(정식 44, 시범 2) 173종별 중 155종별에 1,663명(선수 1,238명, 임원 425명)의 선수단을 편성시켜 '녹색의 땅 전남'

바구니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하위권 전력의 우리 전라남도로서는 작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해야 할 상대가 '2강'에서 '3강'으로 넓혀진만큼 그만큼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에 우리도 경쟁 상대들의 전력도 다수 보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보다 한단계 높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해볼만하다고 인식돼있던 충북, 전북의 전력이 심상치 않아서다.

오는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충북의 경우, 5년간의 중·장기 플랜수에 팀 창단을 통한 불출전 송별을 해소하였고, 전북 역시 전년도 전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대전광역시의 전력 상승도 눈에 띈다. 대전은 최우수금 선수 영입과 전년도 일부 불출전 송별을 해소함으로써 경기력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안

전라남도선수단 46개 종목·155종별에 1,663명 선수단 출전

'녹색의 땅 전남' 위상 되찾고자 종합 11위 탈환 각오 다져

경기당일 컨디션 조절 위한 선수 관리에 심혈 기울여

의 위상을 되찾고자 지난해 순위인 종합12위를 유지한다는 1차 목표속에 2011년 순위였던 종합11위를 탈환차오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전라남도선수단은 지난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후 지난 90, 91체전에서 2년 연속 거뒀던 종합10위 성적은 아니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성적을 거둬으로써 남도인의 기상을 어떻게든 회복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선수단은 전지훈련 및 현지 적응훈련 등 종목별로 80여일간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9월 중순부터는 전인사태전명(人事待天命)의 자세로 경기 당일 컨디션 조절을 위한 선수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와같이 박내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집행부, 종목별 선수단의 굳은 각오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선수단의 사정은 결코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우선 개최지의 인천광역시가 부담스럽다. 지난해 93체전에서 7위를 차지한 바 있는 개최지 인천광역시가 개최지 기산점 및 우수선수 영입 등 전력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많은 득점과 함께 압상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천광역시는 53,000점대의 득점 획득으로 29위 자리를 놓고 '전북의 강호' 서울과 치열한 순위경쟁을 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의 이와 같은 강세는 경기, 서울 '왕강'의 불

러지고 있다.

이때저때 전남으로서는 협공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28,471점) 보다 전력이 약간 상승하여 20,000 ~ 30,000점대의 득점 획득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전년도 대비 득점은 분명 상승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종목의 선전도 예견되고 있다. 즉, 변수 발생이 큰 일부 기록종목(물리, 근대5종, 승마, 롤러, 골프)과 중·하위권의 전력을 보유한 시·도팀과 초반 대진하는 득점 폭이 큰 단체종목(수구, 축구, 탁구, 배구, 검도)의 선전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충북, 전북의 예상 외 부진과 대전의 '첫잔속 태풍',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선수단의 당초 예상과 같은 활약상이 뒤따를 경우에는 전년도 12위권 유지를 넘어, 충북, 전북과 경쟁하는 11위권 진입의 희망도 없지 않다는 분석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94체전은 충북, 전북, 전남, 대전이 11위부터 13위까지 치열한 순위경쟁을 한다는 전제속에서, 매일 선수단의 성적표에 따라 '화제교차'가 극명히 나타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마로 전남선수단의 희망 요소인 셈이다.

/김정환 기자